ALPHA LAB · FREE GUIDE

할 말 없을 때 바로 쓰는 질문 50

질문을 외운다고 대화가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쓰고, 코칭할 때 그대로 알려 주는
상황별 질문 50개를 순서대로 담았습니다.

01 처음 만난 자리
02 번호 따고 첫 카톡
03 카톡이 단답일 때
04 애프터 잡기
05 만나서 가까워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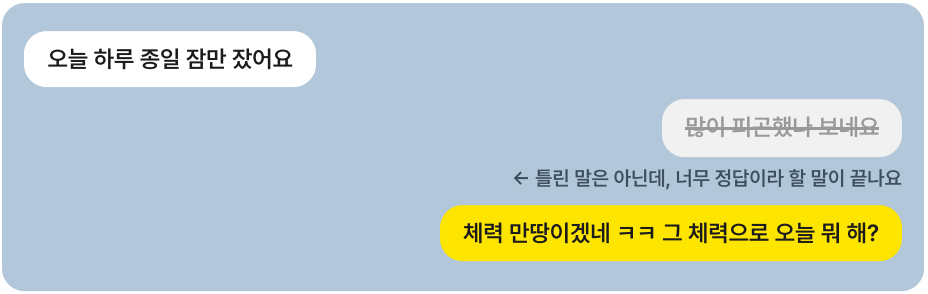
알파랩 : 실전연애

읽기 전에, 이것만

저도 26살까지 모태솔로였어요. 그때 질문 리스트를 엄청 외웠는데, 외운 질문은 티가 납니다.

요즘 지인 형 연애 코칭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한 말이 이거예요.

"형, 그건 너무 정답이야."



이 50개는 외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래 세 가지만 느끼고 가면 됩니다.

① 장면이 그려지게	"뭐 해?"보다 "일요일 저녁인데 뭐 하고 있어?" 장면 하나가 붙으면 대답할 거리가 생겨요.
② 훅 심기	내 얘기에 상대가 물어볼 거리를 하나 남기세요. "비 오는데 세미나 다녀왔어" 하면 무슨 세미나인지 궁금하잖아요.
③ 그 자리 그대로	카톡은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쓰던 말투, 웃었던 포인트를 그대로 이어가면 됩니다.

카톡은 유쾌하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보 주고받으려고 카톡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 번 웃으면 그걸로 성공이에요.

반말 · 존댓말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쓰던 그대로 가면 돼요.

01 처음 만난 자리

호구조사는 여기서 끝내 두세요. 나이 · 사는 곳 · 내일 뭐 하는지. 이걸 카톡에서 하면 면접처럼 지루해져요.

01 오늘 무슨 일로 왔어요? 딱 봐도 친구한테 끌려 나온 느낌인데 ㅋㅋ

틀려도 돼요. 웃으면서 해명하는 순간 대화가 시작돼요

02 몇 년생이에요? 아 잠깐, 맞혀 볼게요

03 집은 어디 쪽이에요? 여기서 멀어요?

나중에 그 동네 맛집이 애프터 명분이 됩니다

04 내일은 뭐 해요?

꼭 물어보세요. 이게 내일 첫 카톡 첫 마디예요

05 무슨 일 해요? 느낌상 디자인 쪽 같은데, 맞죠?

틀려도 그만. "왜 그렇게 보여요?" 하고 물어오면 이긴 거예요

06 친구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놀아요? 딱 봐도 저분 같은데 ㅋㅋ

07 술은 뭐 좋아해요? 소주파예요, 하이볼파예요?

08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요. 소울푸드 같은 거

음식 얘기는 애프터로 가장 빨리 이어져요

09 친구들이 보통 뭐라고 불러요? 별명 있어요?

여기서 둘만 아는 캐릭터가 생겨요. 카톡에서 그대로 써먹으세요

10 솔직히 제 첫인상 어땠어요? 괜찮아요, 저 멘탈 튼튼해요 ㅋㅋ

02 번호 따고 첫 카톡

첫 카톡은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현장이었으면 내가 뭐라고 했을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유쾌하게.

11 아까 그 얘기 아직도 생각나서 웃는 중 ㅋㅋ 집은 잘 들어갔어?

12 비 오는데 세미나까지 다녀오느라 고생했겠다. 오늘은 좀 쉬었어?

장면이 그려지면 "고생했어"도 성의 있게 들려요

13 어제 너무 재밌게 놀아서 나 오후까지 기절했어. 넌 살아 있어?

14 오늘 ○○ 간다고 했지? 다녀오면 후기 들려줘

01장 4번에서 물어본 '내일 뭐 해'가 여기서 쓰여요

15 체력 만땅이겠네 ㅋㅋ 그 체력으로 오늘 뭐 했어?

"하루 종일 잤어요"가 왔을 때. "피곤했나 보네"는 너무 정답

16 일요일 저녁인데 뭐 하고 있어?

그냥 "뭐 해?"보다 훨씬 낫죠

17 나 지금 친구랑 장어 먹는 중. 너 소울푸드는 뭐야?

사진 한 장 같이. 내 얘기 먼저, 질문은 뒤에

18 오늘 ○○ 지나가는데 너 생각나더라. 거기 너네 동네잖아

19 아까 추천해 준 노래 듣는 중인데 ㅋㅋ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20 근데 아까 별명이 ○○이라고 했지? 나 그거 저장명으로 해 둠 ㅋㅋ

03 카톡이 단답일 때

단답이 다 거절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재미가 없어서예요. 질문을 더 던지지 말고, 오늘 있었던 일을 웃기게 던지세요.

21 나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부장님이랑 단둘이 30층 올라감. 체감상 10년 걸림 ㅋㅋ

MSG 한 스푼. 오늘 재밌었던 일을 살짝 부풀려서. 질문보다 이게 답장이 잘 와요

22 점심에 김치찌개 시켰는데 김치가 출장 갔더라. 고기만 3점 있었음

23 방금 편의점 알바생이 나보고 학생이냐고 물어봄. 오늘 하루 이걸로 버틴다 ㅋㅋ

자랑도 웃기게 하면 귀여워요

24 아까 말한 그거, 결국 어떻게 됐어?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점수 따요

25 이거 보고 너 생각나서 ㅋㅋ (사진·짤)

질문이 없는 카톡도 대화예요

26 잠깐, 너 MBTI 맞혀 볼게. 음... 엔프피?

틀리면 더 좋아요. "아니거든?" 하면서 답이 길게 와요

27 이번 주말은 집순이 모드야, 밖순이 모드야?

28 답장에 성의가 1도 없네 ㅋㅋ 바쁜 거 인정. 끝나면 연락해

웃으면서 짚고 넘어가기. 서운한 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29 바쁜 것 같으니까 짧게. 오늘도 고생했어

바쁜 여자한테 카톡은 대화가 아니라 존재감 유지예요

30 그 얘기는 만나서 마저 해 줘

04 애프터 잡기

"언제 한번 봐요"로는 날짜가 안 나와요. 만날 명분 하나 + 날짜 두 개. 이 공식이면 됩니다.

31 너 고기 좋아한다며. 너네 동네 근처에 진짜 맛집 하나 아는데, 토요일 어때?

32 토요일이랑 일요일 중에 언제가 나아?

"시간 돼?"보다 고르게 하는 게 대답하기 쉬워요

33 여기 너랑 가 보고 싶어 (링크)

"혼자 가긴 좀 그래서~"는 쭈뼛거리는 느낌. 그냥 담백하게 말하는 게 나아요

34 저번에 말한 네 소울푸드, 나 아직 못 먹어 봤거든. 네가 책임지고 데려가

35 어제 너무 짧았다. 2차는 다음에 이어서 하자

36 요즘 바쁜 거 알아. 그럼 다음 달 첫째 주 주말 어때? 미리 찜

바쁜 사람한테는 먼 날짜를 먼저 잡아 두는 게 오히려 편해요

37 커피 한 잔이면 30분이잖아. 퇴근길에 잠깐 볼래?

38 맛집은 내가 찾아올게. 대신 메뉴는 네가 골라

39 그날 안 되면 되는 날 말해 줘. 내가 맞춰 볼게

40 아쉽다 ㅋㅋ 그럼 다음에 내가 다시 꼬실게

거절 왔을 때. 다시 만날 발판을 내가 뭉갤 필요는 없어요

💡 "그날은 약속 있는데, 다음 날은 어때?" 이 말이 나오면 거의 된 거예요. 일정이 있는데도 굳이 다른 날을 잡는다는 건, 이미 마음이 반은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05 만나서 가까워지기

여기선 좀 솔직해져도 돼요. 내 얘기를 살짝 먼저 까면 상대도 따라 깝니다. 무겁게 말고, 웃으면서.

41 너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담당이야? 딱 봐도 분위기 메이커인데

42 친구들이 너 연애하면 뭐라고 해? 사람 바뀐다고 해?

43 넌 남자 볼 때 뭐부터 봐? 아 잠깐, 나 지금 몇 점인지부터 ㅋㅋ

44 솔직히 나 처음 봤을 때 헌팅꾼 같았지? ㅋㅋ

술집·클럽처럼 대놓고 노는 곳에서. 내가 먼저 까 버리면 오히려 경계가 풀려요

45 넌 연락 자주 하는 남자가 좋아, 적당히 하는 남자가 좋아?

46 너 술 들어가면 어떤 스타일이야? 말 많아져, 조용해져?

47 아까부터 느꼈는데 너 은근 웃음 많다 ㅋㅋ

48 민트초코 먹어? 이거 진짜 중요한 질문임

49 다음엔 네가 코스 짜. 오늘은 내가 다 정했잖아

"다음"이란 말을 자연스럽게 깔아 두는 거예요

50 한 잔만 더 할래? 아니면 날씨 좋은데 좀 걷자

명분 + 관성. 일단 같이 걸으면 다음 장소로 넘어가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 이건 피하세요 · "전 남친은 어땠어?" (비교·평가로 흘러요) · "왜 연애 안 해?" (해명하게 만들어요)

질문보다 중요한 것

여자랑 대화 잘하는 남자는 질문 많이 외운 남자가 아니에요. 상대가 던진 말 하나 그냥 안 버리고, 거기서 한 번 웃기는 남자예요.

저도 로봇 같은 카톡 보내던 사람이에요. 달라진 건 말빨이 늘어서가 아니라, 여자가 언제 끌리는지 순서를 알고 나서였어요. 그 순서는 아래 책에 다 정리해 뒀어요.

📕 더 에센셜

끌림의 원리 · 남자의 매력과 남성성 · 실전 스킬
제가 실제로 쓴 번따 멘트와 카톡 사례 · 이상형 만나는 법
출퇴근길에 읽는 압축본

목차 · 샘플 먼저 보기 →

카톡 채널 추가하고 새 자료 먼저 받기

유튜브 '알파랩 : 실전연애' · youtube.com/@AlphaLabTT